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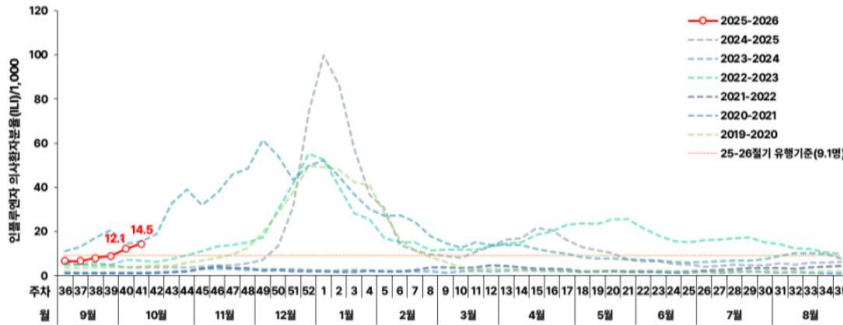
감염관리소식지

2025년 제10호
(2025.10.31)

국내 감염병 동향

■ 2025-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(10.17.금)

- '25년 40주차(9.28~10.4)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.1명(/외래환자 1,000명당)으로 유행기준(9.1명)을 초과하면서,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0월 17일(금)부터 "2025-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" 발령.
- 소아·청소년 연령층 중심으로,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
- 주로 A형이 검출 증으로 A(H3N2)형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
- 손씻기,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당부
- 65세 이상 어르신,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필요



【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(25.10.11. 기준, 명/1,000명)】

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

- 1 기침예절 실천
기침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,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
-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- 4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
2시간마다 10분씩 환기
-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
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



고위험군(65세 이상, 영유아, 면역저하자 등) 및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분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,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자료출처: 질병관리청 알림·자료, 보도자료, 10.21.

01 설치류매개 감염병이란?

등줄쥐, 참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

가을철 농작업과 야외 활동으로 발생 증가
(매년 9~11월에 특히 집중)

02 신증후군출혈열

한티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분변, 오줌, 타액 등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

02 렙토스피라증

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(쥐 등의 설치류, 소, 돼지, 개 등의 가축)의 소변에 오염된 물, 토양,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

04 개인위생 수칙

신증후군출혈열 예방수칙

- 쥐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
- 야외 활동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, 샤워나 목욕하기
-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작기에 예방접종 받고, 농작업·야외활동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진료 받기

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

-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갑, 고무장갑 착용
-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
-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, 신속히 진료 받기

*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알림·자료

해외 감염병 발생동향

■ 네델란드, 엠폭스 새 변종 바이러스 '1b형' 첫 확진자 보고

- 10월 17일 네델란드에서 전염력이 더 강한 엠폭스(원숭이두창) 1b형 변종의 첫 확진자 확인
- 엠폭스는 사지 통증, 발열, 피로감 등을 유발하며 주로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
- 감염자는 백신 미접종 상태로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은 없으며 현재 격리 중으로, 당국은 확산 위험이 낮을 것으로 평가

■ 미국, 홍역 확산... 올해 누적 1,618건 보고

- 10월 21일 기준 미국 내 홍역 사례 1,618건으로, 전년(285건) 대비 5.7배 증가
- 이 중 87%(1,401건)는 집단 감염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
-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(MMR)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강화 권고

*자료출처: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, 감염병 소식, 주간소식지, 2025-42주차